

생물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본 제주 가파도의 생태문화경관 연구

최진우* · 한봉호** · 허명진*** · 이성관****

(재)환경생태연구재단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사)제주올레

I. 서론

가파도는 한국의 유인도 중에서 가장 낮은 섬이며, 청보리 농사와 청보리 축제가 유명하고, 마을 돌담길이 아름다워 올레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문객이 2시간 이내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며, 청보리와 풍력단지(탄소제로 섬)외에는 즐길거리가 한정되어 지역의 특화된 관광상품과 주민 소득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다.

가파도는 과거 조선시대 임금 진상품인 말과 소를 방목하던 곳으로, 개간이 시작되고 150년 전 모슬포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한 섬이다. 일본산 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우물, 불턱, 빨래터, 분당 등 마을 생활문화 양식이 잔존하고, 마을 돌담길과 돌담식생이 아름다운 곳이다. 거주 주민의 인구 및 세력권이 강한 섬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명확한 섬이다.

본 연구는 가파도의 자연환경에 적응해 온 지역주민의 독특한 문화를 생태문화자원으로 분석하여 자연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어우러진 가파도의 특색 있는 생태문화경관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생물문화다양성 개념

전 세계의 중요한 보호구역은 생물 이용에 대한 지혜가 인간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문화라는 체제 속에 투영되면서 나타나는 곳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곳을 보호하고 있고, 이곳이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생명의 다양함에는 기존의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식, 가치, 이해와 같은 문화다양성까지 포함하고 있다(UNESCO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자연환경은 문화의 과정, 행위, 신앙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결과가 경관 속에서 표출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은 생명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life)과 그것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문화적, 언어적

으로 발현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생물문화다양성은 사회·생태학적 복합적응체계(a complex socio-ecological adaptation system)내에서 상호 연결된다(Maffi and Woodley, 2010).

생태계의 복잡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적응 전략은 다양하다. 인간은 오랫동안 주변 경관과 생물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해왔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종을 개발해왔다. 생물 다양성의 활용은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고,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순한 생존 방식은 전통지식으로 발전한다. 육상과 달리 바다인 섬인 경우, 고립성과 소통성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홍선기, 2012).

2. 연구대상지

가파도(加波島)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해당하며,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5.5km 거리의 북위 33°10'6", 동경 126°16'17"에 위치한다. 면적은 약 0.84km²로 제주도의 부속섬 중 네 번째로 큰 섬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총 4.2km. 섬의 모양은 마름모 형상을 띠고 있고, 최고 해발고도는 20.4m로 산이나 봉우리가 없이 평평한 지형으로 이루어졌다. 가파도 북쪽 항구지역을 상동, 남쪽 항구 지역을 하동, 그 중간지역이 중동이며, 상동에서 중동을 거쳐 하동까지는 섬 내부의 안길로 연결되어 있다. 가파도는 본섬과 가장 근접해 있는 모슬포항과 연결되는 주선착장이 마을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선착장은 마을의 형성과 성장에 따라 상동포구 → 하동포구 → 상동포구로 위치가 변경되었다(변경화 등, 2014).

3. 조사분석 방법

섬의 고유한 생태문화자원을 구성하는 건물 및 시설지, 길, 경작지, 자연녹지 및 조경녹지, 영적 문화공간, 생활문화 공간, 해안지질 자원으로 구분하고, 세부 대상을 조사하였다. 자원의 공간적 분포범위를 1/5,000 수치지형도에 면과 선으로 해당 자원을 표시하고, 면적이 협소한 곳은 점으로 표시하였다. 해당 자원의 경관적 구성 맥락과 자연과의 상호관계 내용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지역주민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2016년 4월 에

비답사를 통해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 심층인터뷰는 2016년 11월에 가파도 마을이장과 개발위원장을 대상으로, 2017년 3월에 마을 고령 주민 2인(69세, 79세)을 대상으로 생태문화자원의 유래와 형성 및 변천내용을 조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생태문화자원 맵핑

가파도의 건물 및 시설지는 주택 99가구 중 폐가 5곳, 식당 9곳, 민박 9곳, 마을회관, 보건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 6곳, 발전소, 하수도시설 등 공급시설 11곳, 포구, 방파제, 어촌계 작업장 등 항만시설, 파고라, 전망대, 쉼터 등 휴게시설로 구분되었다. 섬에는 마을안길 1.8km, 해안도로 4.0km, 마을골목길 2.5km, 농로 4.5km가 형성되어 있고, 섬을 순환하는 제주올레길 10-1코스 5km가 개통되어 있다.

현재 가파도의 주요 경관인 청보리밭은 5~6월에 파종하여 10월에 수확하고, 청보리 수확 이후 콩을 재배한다. 자연녹지로 곰솔이 학교 및 공공기관 시설지와 해변에 식재되었고, 사철나무 등 관목은 마을 언덕길에 식재되어 있다. 해변 돌담길 및 초지에 억새, 강아지풀, 갯강활, 선인장 등이 생육하고 있다. 마을과 해변에 일부 조경수 및 원예초본이 식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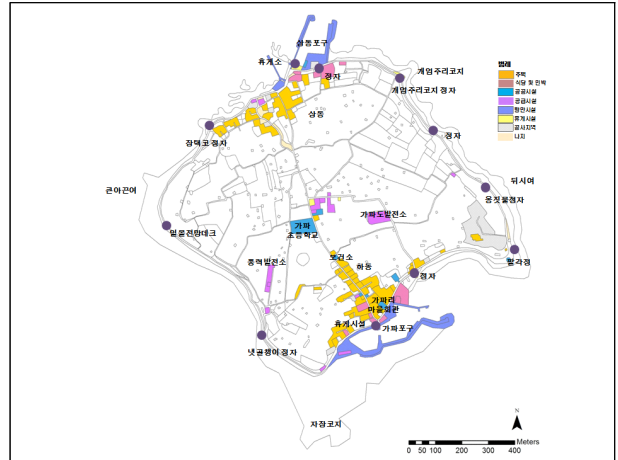
가파도의 영적 문화공간으로 제단집, 제단숙식시설, 상동마을 할망당, 하동마을 할망당 등 마을신앙공간이 있고, 교회, 사찰 등의 일반종교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섬 동측에 공동묘지가 있고, 밭 곳곳에 산담의 형태로 개별 묘지가 분포하고 있다. 큰왕돌과 까마귀돌은 예로부터 금기시 되어온 공간이다. 지형의 고저차가 거의 없으며, 강한 바닷바람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수목의 성장이 어려워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고목이나 성황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활 문화공간으로 연자방아, 우물, 정낭, 빨래터, 블터 등이 남아 있다.

섬의 서쪽 해안에는 파식대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 해안에는 수심이 깊다. 해변에는 주로 현무암절조면안산암이 분포하고, 북서쪽 일부 해변에 몽돌해변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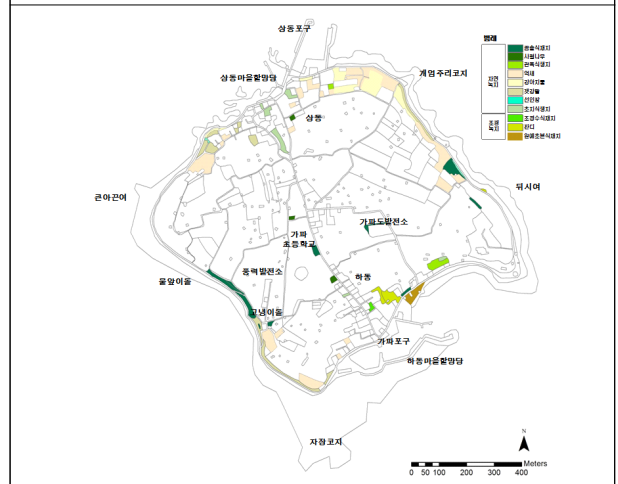
2. 주요 생태문화경관

가파도의 주요 생태문화경관을 마을주택 및 돌담경관, 마을 여성공동체 경관, 마을언덕 돌담길 경관, 청보리밭 경관, 산담경관, 다랭이 돌담 경관, 파식대 및 현무암 노두 경관, 등근자갈 해변 경관, 해안단구 경관으로 구분하여 경관요소 및 자연과 주민의 상호관계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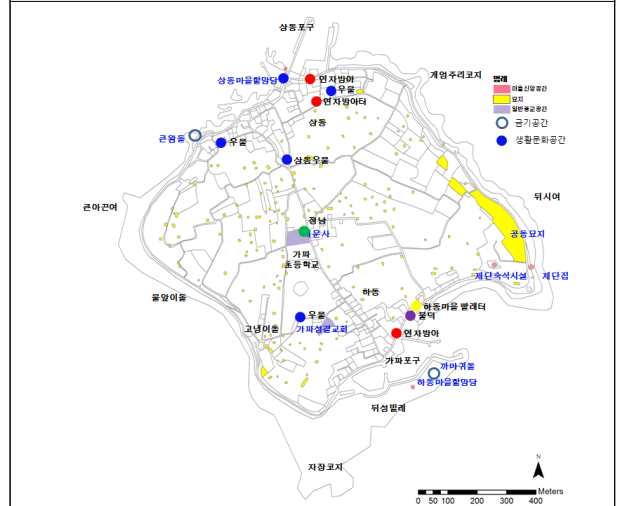
가파도 전체 공간을 조망하거나 가파도 섬에서 바닷가를 조



a: 건물 및 시설지



b: 자연녹지 및 조경녹지



c: 영적 문화공간, 생활 문화공간

그림 1. 가파도 생태문화자원 맵핑

망할 수 있는 주요 경관 조망점을 조망대상의 종류에 따라 유형화하고, 주요 위치와 조망내용을 파악하였다(표 2 참조).

표 1. 가파도 주요 생태문화경관

경관유형	경관 특성
마을주택 및 돌담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 등근 자갈을 옮겨 돌담을 조성하여 독특한 경관 형성 · 주택 처마선 높이까지 쌓은 마을 돌담 ·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마을담장들이 겹겹이 늘어선 돌담길 · 우물, 연자방아, 우영 팻, 통시, 빗물받이 등 전통주택 요소 ·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하여 가루를 내는 도구인 연자방아
마을 여성 공동체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우물: 제주 유인도 중 유일하게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마을, 공동우물과 연계된 빨래터 추정 · 하동마을 빨래터: 샘물을 발견하여 상동에서 하동으로 주머니 옮기는 계기 · 불덕: 해녀들이 물질하기 전 옷을 갈아입고 불을 쪼이던 곳 · 할망당: 상동의 매부리당, 하동의 뒷서낭당, 여자들이 주도하여 어부와 해녀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
마을언덕 돌담길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파초등학교 옆 마을언덕 돌담식생 생물다리에 사철나무(35년생), 까마귀쪽나무, 곰솔 생육 · 가파초등학교 돌담에 구실잣밤나무, 까마귀쪽나무, 아왜나무, 담팔수 생육 · 가파초등학교 운동장 곰솔 방풍림 · 가파보건진료소 곰솔 큰나무
청보리밭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보리가 바람에 일렁이는 푸른물결, 황금물결 · 청보리밭의 다양한 색상과 형태를 지닌 돌담 · 겨울 청보리밭 종달새 군무, 봄 청보리밭 갈새 무리 · 올레길 주변 감국, 갯개미취, 서양민들레, 유채, 팽이밥 등 다양한 야생화 및 나비류 분포 · 청보리 수확 후 콩 채배, 겨울철 역사 및 띠 생육
산담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보리밭 내부에 산담 조성 · 마소의 침입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봉분 주변 산담 조성 · 공동묘지 돌담에 역사, 띠 군락 · 산담 돌무더기와 식생은 도마뱀, 지네, 쇠살모사 등 야생생물의 서식처 및 피난처 기능
다랭이 돌담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단형(4단) 돌담에 역사, 순비기나무, 선인장, 갯쪽부쟁이, 팽이밥, 변행초, 갯강활, 갯강아지풀, 가지나아, 도깨비고사리, 갯완두 등 다양한 야생식물 생육 · 비바람으로부터 소나 말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마장담
파식대 및 현무암 노두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식대 안산암 경관(이개덕, 평풍덕, 지장코지, 뒤시여, 개업주리코지 등) · 큰왕돌, 까마귀돌, 고냉이돌 등 신성시되었던 안산암 노두 · 고냉이돌: 초기 주민들은 어업을 하지 않고 보리, 고구마로만 생계를 유지하여 같이 들어온 육식동물인 고양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폭풍에 떠밀려오는 생선을 기다리다 굶주림에 지쳐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 · 가파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산암 노두 경관(뒤성빌레 일대) · 넓게 형성된 해안 빌레가 해수습지 역할로 다양한 야생생물 서식처 기능 (지장코지)
등근자갈 해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돌에 부딪치는 파도소리, 몽돌 구르는 소리 · 등근 돌로 조성된 가파도의 독특한 돌담
해안단구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단구 급경사 사면지 곰솔-역사, 감국-선인장 경관 · 산책로변 안산암 심층풍화 노두

표 2. 가파도 주요 경관조망점

조망 유형	주요 조망점
파식대 안산암 및 바다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식대 해수습지 조망: 지장코지, 뒤성빌레 일대 · 파식대 안산암 노두 경관: 이개덕, 평풍덕, 큰왕돌 · 바다경관 조망: 넷골쟁이정자 · 바다경관, 파식대 안산암 조망: 고망불, 팔각정
산방산과 송악산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택코 정자, 웅짓물정자, 개업주리코지정자, 물앞밭, 짓단짓밭
마라도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코지, 뒤성빌레 일대, 물앞밭, 짓단짓밭
파노라믹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노라믹 바다 경관: 가파초교 서측 언덕길 · 가파도 최고 해발고(18.7m)에서 바라본 파노라믹 경관 · 들뜬 조망 및 마라도, 산방산, 송악산 조망: 짓단짓밭
일출일몰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출경관 조망: 일출포토존 · 노을경관 조망: 일몰전망대
어촌포구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포구, 고기잡이배, 등대 조망: 하동포구

가파도 주민의 생계활동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섬경관이 변화되었다. 가파도의 원자연은 강한 바람과 낮은 지형으로 인한 파도의 영향으로 수목이 자라기 어려워 역사, 새, 띠 등이 분포하는 초지였다. 1469년 소와 말의 방목이 시작된 이후 넓은 개활지가 형성되고, 방목에 의한 초원이 유지되었다. 1750년부터 방목 소를 지키기 위해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비바람을 막기 위해 마장담을 조성하여 돌담경관이 형성되었다. 1842년부터 섬 개간을 위해 영농기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등근 자갈들을 모아 주택 돌담을 쌓았고, 밭담을 조성하여 방목지가 밭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865년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고구마를 주로 재배하였고, 해녀 및 조업활동을 하면서 할망당, 제단, 공동묘지 등 영적공간이 형성되었다. 공공건물 및 마을안길에는 사철나무, 까마귀쪽나무 등의 상록활엽수 생물다리가 도입되었다. 2000년 이후 청보리특화 사업의 도입으로 청보리밭 경관이 형성되었고, 최근에는 방풍의 목적으로 곰솔이 식재되었다. 향후 가파도 섬의 고유한 생물문화다양성 콘텐츠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UNESCO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71/127162e.pdf>
2. Maffi L. and E. Woodly(2010) Biocultural Diversity Conservation: A Global Sourcebook. London and New York: Earthscan.
3. 홍선기(2012) 섬의 생태지리적 동질성과 이질성: 신안 다도해 하의면과 신의면의 소통. 도서문화 40: 375-395.
4. 변경화, 강은정, 이정림, 김규한(2014) 제주 가파도 전통마을의 영(靈)적공간 형성 및 특징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1): 161-168.

IV. 결론